

한반도 첫수도 고창소식

02
2021
제 467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착한 고창농부의 정성을 듬뿍 담아 드립니다

설명절 선물세트 고창농·특산물

높을고창 쌀
(수광벼/특품)
5만원/10kg



한반도 세트 | 3만원



삼색보리

청맥
500g



김정복음팡콩

고창이애피드
300g



생들기름

호야농장
180g

첫수도 세트 | 5만원



토굴고추장

토굴발효
320g



명인간장

효심당
350g



요리죽염

삼보죽염
180g



복분자발사믹식초

진농식품
100g



통후추그라인더

해리농협
60g

★문의처 : 고창군청 농어촌 식품과 수출마케팅팀(T.063-560-2701)
★주문처 : (주)고창황토배기유통(고창읍 녹두로 1265)(T.063-564-2009)
※예금주 : (주)고창황토배기유통 / 농협 301-0150-7794-81 ※택배비 무료



고창에서 제일 오래된 '시장 떡 방앗간' 설맞이 풍경

가래떡 기다리며 자식 자랑 이야기꽃 활짝
손품·발품 번거롭지만 가족 먹일 마음에 으쓱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고창 시장떡방앗간에는 벌써부터 가족에 대한 정, 만남에 대한 설렘, 기대들로 고소한 냄새가 물씬 풍겼다.

덜커덩덜커덩~! 시끄러운 방앗간 분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뽀얀 쌀가루를 쏟아낸다. 한쪽에 놓인 찰기에서 하얀 증기가 배출되니 고소한 떡 내음이 동네방네 가득하다. 막 찌낸 백설기는 그 자체로도 별미지만 다시 제병기를 거쳐 길게 뽑아냈더니 군침 도는 가래떡이 완성됐다.

신축년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주문이 밀린 가래떡을 뽑아내느라 분주한 고창읍 시장떡집을 찾았다. 2대째 이어지고 있는 고창에서 제일 오래된 떡 방앗간이다(1987년1월 등록).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은 커다란 포대와 대야를 들고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방앗간에는 금세 흰 쌀이 수북이 담긴 고무대야 십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방앗간은 예로부터 시골 아낙들의 사랑방이었다. 단골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패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난로 옆에 웅기종기 모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떡국은 새해가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 먹는 첫 음식이다. 우리 조상들은 긴 가래떡을 먹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긴떡을 먹기 좋기 둥글게 썰어내니 마치 엽전 같다고 해서 떡국을 먹으며 부자가 되라는 덕담도 곁들였다.

장화순(69) 대표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하얗고 긴 가래떡처럼 이곳을 찾는 분들이 올해도 좋은 일만 있고 앞길도 막힘없이 쪽쪽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높을고창 쌀', 챔피언 먹었다!! 경기미 등 기존 브랜드 쌀 제쳐.. 최고가(5만원) 판매에도 인기몰이

"밥 지으면 집안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구수한 향기에 코를 벌름거리요"
"식은 밥도 맛있는 건 높을고창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전북 고창군의 프리미엄 친환경 쌀인 '높을고창 쌀'이 지난해 연말 신규출시를 시작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프리미엄 온라인 마켓인 'CJ the market'에서 쌀을 판매한 결과(5만원/10kg) 일평균 300만원씩 매출을 올렸다. 이는 기존 경기미 등 유명 쌀 등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국 최고의 친환경 쌀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높을고창 쌀은 한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063-561-4176).



'신청하고 혜택 받아요' 2021년, 고창군민이 꼭 알아야 할 지원사업!

01 고창판 농민수당, 전북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접수

연 1회 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자격 :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며

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어가(양봉농가)

문의 : 고창군청 농업정책팀(560-2521) 및 각 읍·면사무소

※ 금년부터 양봉농가와 어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02 코로나19극복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기간 : 2021년 1월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주요내용 :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구매한도

· 지류형 상품권 : 월 50만원

· 지류+카드 상품권 : 월 100만원(지류형 상품권 50만원 초과할 수 없음)

문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560-2351)



황새도 선택한 대한민국 생태문화수도 고창 고창군 하천·갯벌 곳곳서 천연기념물 황새 무리 발견 잇따라

“겨울에도 따뜻해 얼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바닷가 등을 월동지로 선택한 듯”



사진작가 박현규 제공

길고 가느다란 다리에 까맣고 긴 부리. 천연기념물 황새다. 마치 연하장 그림처럼, 흰 눈이 쌓인 갯벌과 논밭 위로 크고 흰 새가 목을 길게 빼고 유유히 날아다닌다. 고창군 해안가와 갯벌 곳곳에서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황새가 목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전 겨울마다 10여 마리가 고창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60여 마리가 무리로 목격된 것은 처음이다.

“지역 자연생태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사례”

고창군은 이번 황새 무리 출현에 대해 지역 자연생태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생태계 멸종위기종의 최적의 서식환경을 갖추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새들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활동지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송어와 뱀장어 같은 물고기는 염도가 낮은 민물을 만나면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황새들이 이런 양호한 서식환경을 본능적으로 알아내 기수역에 모인 것이다. 수확이 끝난 인적 드문 심원, 해리 농경지도 황새들의 먹이터가 됐다. 친환경 농업으로 농약 사용이 줄어든 결과다. 염전에 물을 끌어 오기 위한 돌담식 농수로도 황새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콘크리트가 아닌 돌담식 농수로는 다양한 수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진작가 박현규 제공

고창, 한반도 황새의 고향으로 키운다

문화재청도 ‘한반도 황새 복원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고창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고창군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황새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황새 둥지탑을 세우고 있다. 16m높이의 인공 둥지탑에 황새가 자연산란과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문화재청은 먹이가 풍부하고, 개발이 적은 고창에서 황새가 월동기를 지나 산란기까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충분히 황새의 고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은 황새를 키우고, 황새는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황새가 살기 좋은 환경은 당연히 사람도 살기 좋은 환경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국최초로 전체 마을이장들이 모여 유전자변형농작물(GMO) 퇴출 선언을 했고, 농약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고, 화학비료를 억제하는 친환경농법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나아가 군은 황새가 날아다니는 친환경 고창이라는 인식을 경제효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게르마늄 향토 땅에서 재배된 고창의 수박과 복분자, 멜론, 고구마, 땅콩 등은 이미 국내최고의 명품으로 자리 잡았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재배된 환경친화적 농산물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은 선풍 지갑을 열었다. 여기에 황새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는 고창군의 강력한 브랜드가 될 전망이다. 고창군수는 “천연기념물인 황새도 살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사람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며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친환경 도시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3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신입생 모집

-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2021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

- 모집일시 : 2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 지원자격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고창군청·고창군청 산하기관·고창군 내 농생명분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영농법인 등)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접수방법 :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학과사무실
(고창군 고창읍 태봉로361, 562-2601)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합격자 선발 : 면접 2월18일(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본부)
이후 2월22일 전북대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통해 최종합격자 발표
※4년제 야간대학. 졸업시 전북대학교 농학사 학위 수여(고창군에서 학기당 등록금 50%지원)



우직한 소의 해

2021년 신축년 설날을 맞아 “희망메세지,,를 담아봤다.

“매서운 바람 견뎌내고 동백이 피듯,
희망을 잊지 않길”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 되자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방역 울력해 함께해준 선운사의 경우 주지스님. 경우 스님은 “전례없는 전염병을 겪으며 인간과 자연이 상생의 관계라는 사실, 온 지구촌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연기적 존재임을 깨달아 인연으로 만난 중생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우스님

선운사주지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로 소득 늘고,
활력 넘치는 농촌”



최종엽

고창농촌지도자회 회장

평생동안 고창에서 흙을 만지며 살아온 고창농촌지도자회 최종엽 회장. 최 회장은 “무엇보다 올해는 날씨로 마음 줄이는 일이 없는 한해를 기원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고창의 농산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활력 넘치는 농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당연히 됐던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며 “그래도 나를 되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건강하고 맛있는 밥상,
전국의 수많은 손님들에게 선보였으면”

땅(地), 물(水), 불(火)을 주제로 하는 고창군의 대표 맛집 15곳이 함께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의 남기중 공동대표. 남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국내·국제 여행객들에게 고창의 참 맛을 선보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고창에서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에 그간의 힘든 일을 다 털어 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기중

한반도첫수도밥상 공동대표

“코로나19 극복,
지역상인들 웃음꽃 피는 2021년 대박”



정선희

용정상회를 운영, 고창상인회장

고창군 전통시장에서 용정상회를 운영하는 정선희 고창상인회장. 정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겨울엔 폭설과 한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상인들이 너무나 힘든 한해를 보냈다”며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한해였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남 눈치 안 보고 꾸밀 수 있는,
웃을 일 많은 한 해 되길”

정 원장은 “모임과 바깥 활동이 제한되면서 결혼식, 돌잔치, 칠순잔치 등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걸 보면 많이 안타깝다. 아깝게 꾸미고, 이쁘게 보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인데도,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것 같다”며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마음껏 꾸미고, 돌아다니며 뽐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명자

고창읍 시장길 동지미용원 정명자 원장

“마스크 벗고 청보리밭,
선운산 나들이 가는 날 빨리 오길”



정재식

대산면 대산미용원 정재식 이발사

정 이발사는 “오는 손님마다 귓가에 선명하게 새겨진 마스크 자국이 안쓰럽다”며 “어여 빨리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청보리밭, 고창읍성, 선운산 나들이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에 ‘임대문의’라고 씌여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희망뉴스 1번은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서 나고자란 김진근 이장. 김 이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올 7월에 열린다는 얘기에 많이 설렌다”며 “고창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고향 마을이 더욱 발전하고 행복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돌마을은 갯벌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며 청정한 고창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나는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근

만돌이장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 펼치는
2021년 한반도 첫수도 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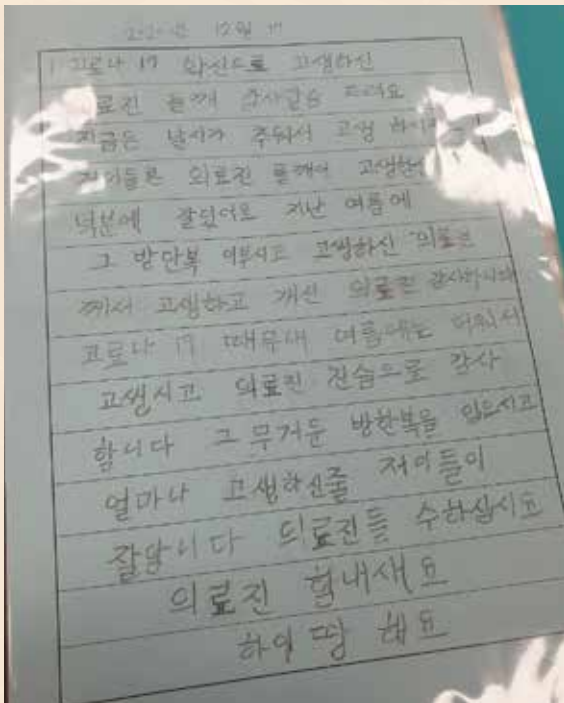
이윤기

청년벤처스회장

고창지역 생산과 가공·유통분야의 젊은 청년 CEO로 이뤄진 고창청년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이윤기 회장. 이 회장은 “지역 청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새해 바람을 전했다. 이 회장은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타 도시의 젊은이들이 부러워하고, 지역에 정착해 활기찬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 문해교실 어르신, 감사 손편지 전달 화제

‘찾아가는 문해교실 고인돌학당’ 어르신 33명, 고창군수와 의료진들에게 손편지 전달



“한자한자 일거가니 봉사가 눈 뜬 것 맵기로 좋네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맘시 육보는데 참말로 고맙당게”

고창군 문해교실 어르신들이 고창군수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손수 쓴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비록 맞춤법이 조금씩 틀리고 비뚤비뚤한 글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평생 가슴에 묻었던 애환과 정성이 스며있기에 어떤 문학작품보다 더 훌륭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창군은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_고인돌 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교육부 국비를 지원받아 읍·면 경로당 등에 문해교육사(전문강사)를 파견했다. 몸이 불편하거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먼 소재지까지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했고, 지역 내 어르신 90여명이 학습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배움의 기쁨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호환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며 그간 배운 한글 솜씨로 손편지를 적었다. 고창군 문해교육협의회 이강숙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문해교육사들도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사업에 성금을 기탁하면서 뜻을 보탤다.

고창군수는 “지금까지 받아본 편지 중 제일 값지고 감동적인 편지로 잔하고 몽클하다”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고창의 뿌리를 지켜온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배움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콩의 달인’ 고창 공음 김복성씨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김복성씨, 36년간 고창 공음서 콩 재배..개인시험포 운영해 우량 품종 개발

“수입산이 점령한 국내 콩 시장 안타까워..
토종 콩의 위대함 보여줄 것”

“쉬지 않고 고민하고, 더 좋은 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제 농사의 비결입니다”

‘콩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창군 공음면 김복성씨(59). 김씨는 지난 연말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선정됐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 중 올해 전국에서 단 5명 밖에 선정되지 못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농업인의 자부심이 크다.

김씨는 1985년부터 36년간 고창군 공음면에서 매년 150ha이상의 콩을 재배해 오고 있다. 특히 김씨의 농장에서는 다양한 신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 20여년간 개인 시험포를 운영하며 콩과 밀 종자의 도사가 됐다.

김씨는 “값싼 외국 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지역의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가격, 노동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고급화와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창공연구회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의 농업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김씨는 “고창군이 최근 토종종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며 농생명문화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농민들의 경험이 시너지를 내면, 농생명식품수도가 그리 먼 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5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1	간호조무사	월급 260만원 3교대병동근무*9명 데야: 07:00~15:00 이브: 15:00~23:00 나이트: 23:00~07:00 N8, OFF8(OT 0.5시간삽입)	채용시	고창읍
2	석정힐스대표자회의	1	경리사무원	월급 183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고창읍
3	(주)서부현대서비스	3	판금, 도장정비원	월급 250만원~ 주6일근무/월~금09:00~18:00 토09:00~12:00	채용시	고창읍
4	마켓레이지헤븐	1	중간관리직	월급 230~250만원 주6일근무/08:00~18:00	채용시	고창읍
5	국순당고창명주(주)	1	일용생산직	시급 8,720원 (일평균14일근무)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심원면
6	농업회사법인(주) 이앤지푸드	1	생산직	시급 8,590원 주5일근무/08:30~17:00	채용시	부안면
7	선운산쌀과방 영농조합법인	1	생산직	월급 183만~210만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8	(주)금성캐미칼	1	단순근로 종사원	월급183만원 주5일근무/06:00~18:00	채용시	아산면
9	(유)도건엔지니어링	1	총무사무원	월급 183~200만원 주6일근무/월~금08:00~18:00 토08:00~12:00	채용시	흥덕면

구인, 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고창고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

문의 : 560-0540, 고창읍 중앙로330 불교회관 1층
<http://www.work.go.kr/gochang>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고창군의회 2021년 상반기 회기운영 계획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군민 속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참여하는 의정 함께가는 의회, 군민에게 희망 주고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항상 군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군민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는 책임의회를 구현할 예정이다.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점검하여, 고창군 행정에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더 나은 군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연2회에 걸쳐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정의 효율적 견제와 재정민주화 실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4월중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2021년도 고창군의 중점 추진사업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 현장을 살펴보고 이를 집행기관과 함께 뜻을 모아 보다 나은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1차 정례회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17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25일에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6



고창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4건의 의안을 의결 하였다. 최인규 의장은 “한 해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임시회인 만큼 금년에 계획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제278회 임시회 의안 처리결과

소 관 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비 고
합 계		4건		
자치행정 위원회 (1)	367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원안가결
	368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	원안가결
산업건설 위원회 (3)	370	높을고창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업 기술센터	수정의결
	371	고창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 기술센터	수정의결

‘고창의 겨울은 따뜻했네’ 사랑의 온도탑 179도 달성

고창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1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마감
62일간 5억원 넘는 성금 모여.. 기관·단체부터 일반 군민모두 한마음으로 울력

고창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2021 나눔캠페인(2020년 12월1일~2021년 1월31일, 62일간)’을 펼친 결과, 사랑의 온도탑이 당초 목표보다 높은 179도를 기록했다. 고창군 최종 집계에 따르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액은 5억3671만5570원(1월2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액 3억원 보다 무려 2억원 이상 더 모금 됐다. 성금은 현금기부 3억5600만원, 물품기부 1억8000만원 등이다. 익명의 천사, 매년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계각층의 성금전달이 잇따르면서 사랑의온도가 180도를 훌쩍 넘었다. 고창군 공직자들도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며 899만2000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소외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명절위문금 등으로 지원된다.

고창군수는 “어려운 경기에도 이웃 사랑에 많은 관심을 주신 단체, 기업 및 군민분들의 사랑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고창에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희망2021 나눔캠페인 기간 중 기관·단체·개인 성금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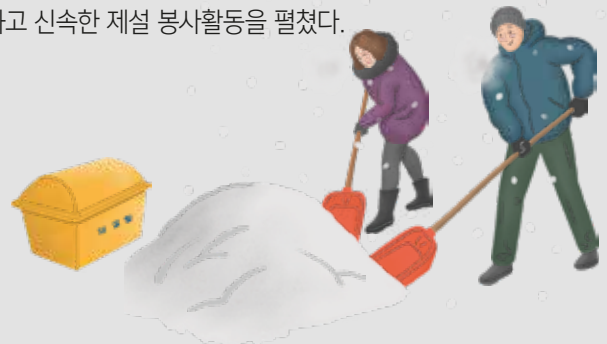
(우)흥덕기업 김정숙, (유)엘림건설엔지니어링 조보익, 한반도첫수도고창밥상 참여업체 일동, 정서경, 골프존카운티선운, 비스트로오늘 염성민, 석정힐컨트리클럽, (주)동림개발·설빙고창점 임진용 대표, (사)한두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정종만 고창군장애인복지관장, 모송회 임채남 회장 등, 굿메이킹굿볼런티어, 고창군 기해회, 고창군도시재생디자인공방프로젝트, 모양성마을주민협의체, 천성사, 농협은행(주)고창군지부, 대성전력주식회사, 김정수, 풍천회(안영선), 박소영(김용채), 국제경제문화교류협회장 최경진, 전북한우협동조합 설귀한 센터장, 고창교회, 성송면이장협의회, 선운양만장, 나우건축(김성규), (주)리더스산업, 고창낙우회 청년분과, 웰런비엔에프, 한국쌀전업농고창군연합회, 아이세상어린이집,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정상규(고창군한마음), 김병희, 십자의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박종주(노점상상인회), 해리면 문선자, 손영찬(민족통일고창군), 고창청년벤처연구회,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 매산초등학교, 조정호, 고창상희팜푸드영농조합법인, 고창성북교회, 원천교회, 고창군토우회, 대일하이텍, 고창군공무원일동, 박제철, (주)가나묘지이장공사, (주)엠케이에프엔씨, 오용복(전희순), 고창로타리클럽, 고창군산림조합, 우리농약사, 서울시니어스&고창타워입주자일동, 고창군상이군경회장 김양기, 종로금방, 고창소방서, (유)태흥축산, 고창 셋별유치원, 고창군어촌계장협의회, 고창군자율관리연합회, 돌하담전통문화연구소, 해리면 문선자

※지면의 부족으로 읍·면 기탁자분들을 다 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랑스런 고창군민, 폭설 속 제설봉사 울력 맹활약



고창군 주민들이 폭설과 혹한에도 제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맹활약했다. 대산면에서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황선민씨는 폭설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려운 대산시장길을 대형 포크레인과 트럭을 동원해 눈을 치우고 얼어붙은 노면을 말끔히 정리했다. 고수면 문화마을 임종학씨도 중장비를 동원해 결빙구간 제설작업에 동참해 주는 등 주민 스스로 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고창군 지역자율방재단(단장 박성만, 류성천 사무국장, 변법섭 고창읍지회장, 김성수, 김성훈, 박오중, 전병성, 장홍준 단원)도 중장비(굴삭기2, 덤프1)를 동원해 고창지역 곳곳에서 눈을 퍼내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며 제설작업을 도왔다. 이밖에 각 읍·면에서도 차량통행과 주민안전을 위해 제설봉사단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신속한 제설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통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사임당푸드’

“오롯이 한국의 전통 맛과 멋을 계승하며 성장하는 식품기업”



조해주 대표

고창군에는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이념을 가진 기업이 있다. 2004년에 설립된 사임당푸드는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HACCP 인증과 CLEAN사업장 인정을 받아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한과와 떡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임당푸드의 대표 제품인 망개떡은 향긋한 향과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는 망개잎으로 싸여 있고, 너무 달지 않은 팔랑금과 한입크기 사이즈로, 쫄득한 식감이 좋아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또한 우리 과자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위해 출시한 복분자한과는 국산 찹쌀과 쌀, 복분자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사임당푸드는 HACCP 인증, ISO22000, CLEAN사업장,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으로 당사의 기술력과 품질관리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홈쇼핑, 면세점, 대형마트 등 다수의 판매처를 통해 납품과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끊임없는 제품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계승, 발전시키며,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적극적인 소비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조해주 대표는 “우리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의 힘으로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 고객님께는 안심음, 농민들께는 보람을 드리는 삼락농정을 실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T E L : 063-561-5986/010-6478-8945
홈페이지 : <http://www.saimdangfood.kr/>



강릉환(姜膺煥 1735~1795) 전라도 무장현(현재 성송면 암치리)에서 출생했다. 강릉환은 영조46년(1770년) 나이 36세때 무과에 급제해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그가 평안도 창성부사로 재직할 당시 압록강 연변 일대의 세밀한 군략지도를 만들었고 대구영장과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재직시에는 영남해안 일대의(역시 세밀한) 군략지도를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케 했다. 그는 지도를 각각 3부씩 작성해 1부는 국왕에게 올리고, 1부는 관아에 비치케 했는데 그 일부인 청북변성도(압록강 연안 일대의 국경지대를 그린 것)와 고려중요처도(동해안의 영해로부터 안동에 이르기까지 연안 일대를 그린 것)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또 문화재로 지정된 상반신 초상화는 정조 19년(1795년) 그가 궁중에 들어가 국왕을 뵈었을때 우국충군의 인물임을 알고 정조가 궁중의 화공에 명해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그는 정조 19년 (1795년) 7월에 고향에 향년 61세의 일생을 마쳤다.

그가 남긴 유품인 고려중요처도, 청북변성도, 칠원점적, 태영점적, 강릉환영정, 교지 등 4종 12점이 전라북도 유형 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돼 있다.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구슬이 된 목걸이



이준연 동화, 김승연 그림
아동문예사 / 2007
성호도서관 비치
: 아813.8-이76ㄱ

성호도서관 063-561-2421

고창 출신 아동문학가인 작가가 쓴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동화집. 저자가 자신의 어린 손녀들과 어린이 독자들에게 선물이 되길 바라며 지은 책이다. 저자는 어린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기를 소망했다. 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이 책은 풍년고드름, 구슬이 된 목걸이, 봄바람 살랑이 등 12가지 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의 애정어린 시선이 담긴 동화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겨울방학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소개

이준연 아동문학가(-2017 작고)

1939년 1월 16일,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 출신

196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 '인형이 가져온 편지'로 등단.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세종아동문학회 회장, 강서문인협회 고문 등 수십권의 창작동화집과 '새로 쓴 우리 꽃 전설' 등의 수십권의 한국전래동화집